• 1교시 언어 영역 •

정 답

1	④	2	①	3	②	4	①	5	④
6	①	7	⑤	8	②	9	③	10	③
11	④	12	①	13	②	14	④	15	⑤
16	①	17	②	18	⑤	19	①	20	③
21	③	22	①	23	①	24	④	25	①
26	⑤	27	①	28	⑤	29	②	30	⑤
31	④	32	⑤	33	③	34	②	35	③
36	①	37	④	38	②	39	⑤	40	⑤
41	⑤	42	②	43	②	44	③	45	③
46	③	47	③	48	④	49	④	50	④
51	⑤	52	②	53	③	54	④	55	④
56	①	57	④	58	③	59	④	60	⑤

해 설

[듣기 대본]

1. 이제 여러분은 어떤 드라마의 연출자와 카메라 감독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연출자 : 카메라 감독님, 마지막 장면의 카메라 이동 경로를 좀 색다르게 설정해 볼까 합니다.
카메라 감독 :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연출자 : 레코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자 주인공과 찻길 건너 회사에 근무하는 남자 주인공, 그동안 두 사람에겐 가슴 조이는 엇갈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마지막 신은 두 사람의 사랑이 결실을 맺는 장면이니까 중요하잖아요.
카메라 감독 : 그렇죠. 시청자 의견을 보니 해피엔딩에 대한 기대가 대단하던데요.
연출자 : 그러니까요. 마지막 장면은 갈등의 해소를 보여줘야 하니까 카메라를 현재의 위치에서 최대한 주인공들 가까이로 이동시켜서 두 사람의 환한 얼굴을 화면 가득 담아냅시다. 사랑스런 두 시선이 교차되는 것까지도 표현해야겠죠.
카메라 감독 : 예에, 그렇겠네요.
연출자 : 그 다음으로 신경쓸 것은, 카메라를 원래의 위치보다 뒤쪽에 있는 나무 위로 빠르게 이동시켰다가 서서히 회전시키는 겁니다.
카메라 감독 : 나무 위로요? 그렇게 하면 온 세상이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축복하는 듯한 느낌이 들겠군요.
연출자 : 맞아요. 바로 그런 느낌을 표현하고 싶어요. 또 카메라를 회전시키면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건물 3층의 레코드 가게에서 그들을 내려다보게 하구요. 그리고 카메라를 계속 움직여서 차도 위를 가로질러 남자 주인공이 늘 여자 주인공을 바라보던 건너편 빌딩 사무실에서 그들을 향한 마지막 시선을 멈춥니다. 이처럼 고정되지 않고 움직이는 화면은 주인공들의 만남의 과정만큼이나 역동적인 느낌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카메라 감독 : 아, 그런 생각이셨군요. 그런데 문제는, 카메라가 두 사람에게서 갑자기 멀어진 후에 회전을 하게 되면, 조명이나 마이크를 담당하는 스텝들이 카메라의 반경 밖으로 몸을 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잖습니까?
연출자 : 아, 바로 그겁니다. 분주히 움직이는 스텝들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담아내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드라마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들여 만들었답니다.'라는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거든요.

[출제의도] 정보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카메라는 현재의 위치에서 두 사람 가까이로 이동했다가 나무 위로 빠르게 이동한다. 그 다음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레코드 가게로 가서 멈췄다가 길을 가로지르면서 건너편 빌딩 사무실에 이른다.

2. 이번에는 환경 수업의 한 부분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교실 안, 학생들의 웅성거리는 소리)
선생님 : 자, 여러분! 오늘은 환경과 관련하여, 우리가 보호해야 할 생물에 대해 발표해 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누가 얘기해 볼까요?
여학생 : 저는 외할머니 댁에 갔다가 긴꼬리투구새우를 봤어요.
학생1(남) : 투구? 진짜 투구를 쓴 거야? (학생들, 한바탕 웃음)
여학생 : (가볍게 웃으며) 진짜 투구는 아니지만, 모양이 꼭 투구를 쓴 것 같이 생겼답니다. 농약이 보급된 1970년대 이후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 제 외가 동네에서는, 논에 긴꼬리투구새우가 돌아왔다고 많은 분들이 기뻐하세요. 아마 이 새우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을의 논에 농약을 쓰지 않고 우렁이 농법과 오리 농법 등 친환경 농법을 썼기 때문인 것 같대요. 몇 년 전부터 마을 전체가 환경 농법을 보급하는 데 힘을 기울였거든요.
선생님 : 네, 새우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마음이 참 흐뭇해지네요. 자, 다음은 누가 또 발표해 볼까요?
남학생 : 저는 옆 동네 큰아버지 댁에서 본 제비를 소개할까 합니다.
학생2(여) : 제비? 아니, 니 얘기를 하겠다는 거니? (학생들, 한바탕 웃음)
남학생 : 저보다 훨씬 멋있는 제비예요. (학생들, 웃음) 제비는 곡식을 먹지 않고 해충만 잡아먹는 이로운 새로 알려져 있는데, 요즘은, 도시는 물론이고 웬만한 시골에서도 제비를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큰아버지 댁에 놀러갔다가 여러 마리의 제비가 둥지를 틀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정말 반갑더라구요. 큰아버지께 여쭤봤더니 그것도 숫자가 많이 줄어든 거래요. 남은 제비들도 언제 사라질지 모르겠다고 걱정하시더군요. 그게 다 농약을 많이 써서 그런 거래요. 큰아버지께서는 농산물 수확량을 좀 늘리려다가 더 많은 것을 잃었다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모릅니다.
선생님 : 네, 두 학생의 말을 들어보니 결국은 ___ ___.

[출제의도] 화자의 말 뒤로 이어지는 내용을 추리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두 학생의 발표에는 그 동안 볼 수 없었던 긴꼬리투구새우가 농약을 쓰는 대신 친환경 농법을 쓴 마을에 다시 나타났다는 내용과, 예전에 많이 보이던 제비가 농약 사용 때문에 점점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이 둘을 종합하여 농약 사용을 억제해야 땅도 좋아지고 생태계도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알맞다.

[오답풀이] ② 사라졌다가 돌아온 것은 긴꼬리투구새우에만 해당한다.

3. 이번에는 교양 강연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입시로 인한 부담 때문에 마음 편히 독서하기가 쉽지 않죠? 책 속에는 우리 인생을 바꿔놓을 수많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책을 가까이 할 여유를 누리기 어려운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오늘은 제 고등학교 친구 '은숙이'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여고 시절 어느 날, 늘 명랑하던 은숙이가 교정의 벤치에서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는 걸 봤어요. 다가가서 툭 쳤더니 대뜸 저에게 "너, 전혜린이라는 작가 들어봤니?"하고 묻더군요. 그 때 은숙이의 손에는 전혜린 씨가 쓴 '이 모든 괴로움을 또 다시'라는 수필집이 들려 있었고, 은숙이는 제게 자신은 지금 전혜린이라는 인물에 푹 빠져 있다고 말했죠. 그 수필집에 나타난 전혜린의 학문적 열정에 너무 감동했다는 거예요. 자신도 그녀처럼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싶다고 얘기하더군요. 은숙이는 대학 진학 때 독어과를 선택하겠다고도 했어요. 그 때 은숙이의 표정은 정말 진지해 보였습니다. 그 후, 입시 준비로 정신 없다 보니, 저는 은숙이의 말을 잊고 지냈죠. 그런데 졸업식 날 한국대학 독어과에 입학하게 되었다는 은숙이의 말을 듣게 되었고, 저는 "은숙아, 정말 니 생각대로 됐구나."하며 축하해 주었답니다. 어느덧 저는 나이가 서른을 넘었고,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숙이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독일로 건너가서 전혜린이 다녔던 뮌헨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지금은 자기가 그토록 선망하던 전혜린의 열정에 뒤지지 않을 만큼 학문의 세계에 푹 빠져 살고 있지요. 이제 얼마 후면 박사 학위를 딴다는 은숙이의 반가운 편지가 엊그제 도착했답니다. 여러분! 은숙이의 삶의 방향은 그 때 수필집 안에 제시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출제의도] 화자의 발화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연사는 책을 가까이하기가 어려워진 현실을 안타까워 하면서, 한 권의 책으로 인해 삶의 방향을 잡았던 친구 '은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즉 은숙이가 그랬던 것처럼 청중들에게도 책을 통해 삶의 방향을 찾아보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이다.

4. 이번에는 114 번호 안내에 대한 뉴스의 일부를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14 전화 번호 안내를 이용하다 보면, 번호가 등록돼 있지 않아 안내 받지 못하거나 틀린 번호를 안내 받은 경험이 누구에게나 한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음향 : 114 안내 전화 연결]
"중앙동 으뜸 약국 번호 좀 알고 싶은데요."
(타닥타닥 자판 두드리는 소리)
"죄송합니다. 등록돼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원하는 번호를 안내 받지 못한 경우나 또는 틀린 번호를 안내 받은 때에도 요금이 부과될까요?
[인터뷰 : (멘트-'시민들의 말입니다.')]
시민1(여) : "교환원과 통화를 했으니까 당연히 요금이 나오겠죠." (1, 2초 정도 사이)
시민2(남) : "원하는 정보를 못 얻었는데 요금이 붙으면 말이 안 되죠."
대부분 별 생각 없이 이용하는 전화 번호 안내에, 정보 제공 여부에 상관없이 일단 교환원과 연결만 되면 한 통화당 120원, 할증 시간에는 140원씩 꼬박꼬박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114 전화 번호 안내 이용 건수는 9억 2천만 건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1,100억 원이 넘는 이용료가 부과된 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안내원과 연결되더라도 여러 이유로 안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통신 회사의 약관 중에는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 (멘트-'통신회사 담당자의 말입니다.')]
"안내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회사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60일 안에 관련 조항을 시정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출제의도] 개괄적 정보를 파악하는 문제로, 제시된 내용을 통해 결론을 추리해보는 문제이다.

기자는, 114에 전화를 걸면 번호 안내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요금이 부과된다는 것과, 이런 요금 부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요금 방식은 '원하는 번호를 안내받게 되었을 때 요금을 내는 것'이다.

[5~6] 이번에는 방송 퀴즈 프로그램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5번과 6번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시그널 음악>
사회자 : 안녕하세요? 청소년다운 열정과 탐구정신을 겨루는 고교생 퀴즈의 최정윤입니다.
<방청객 박수 소리> 자, 오늘도 먼저 두 학생을 모시겠습니다. 지난 주에 이미 3승을 거둔 장경식 군과 새로운 도전자 홍승혜 양입니다.
장경식(남) : 백두고등학교 2학년 장경식입니다. 오늘 꼭 퀴즈왕에 등극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청객 박수 소리>
홍승혜(여) : 안녕하세요? 지난 주에 장경식 군에

게 도전했다가 실패한 친구의 한을 풀어 주기 위해 나온 한라고등학교 2학년 홍승혭니다.
<방청객 웃음과 박수 소리>
사회자 : 네, 대단히 무서운 임무를 띠고 출연하신 도전자 홍승혜 양, <방청객 웃음> 1단계 문제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홍승혜(여) : 일반 상식 선택하겠습니다.
(띵동) [E] 이 동물은 몸이 튼튼하고 지구력이 강하면서도 온순하여 농경용이나 운반용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암말과 수나귀 사이의 1대 잡종으로 태어난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사회자 : 참고로 찬스를 사용하면 보기를 드립니다. (2-3초 사이) 네, 홍승혜 양, '찬스'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럼 보기를 드리도록 하죠. 보기 1번 노새. 보기 2번 조랑말—. 자, 골라 주세요—. 자, 답을 동시에 열어 보겠습니다. 두 학생 모두 1번 노새를 고르셨는데, (2-3초 사이) 정답입니다. <방청객 박수 소리> 암말과 수나귀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노새이고, 거꾸로 수말과 암탕나귀 사이에서 태어난 동물은 '버새'라고 하지요. 자, 이제 2단계로 넘어가도록 하죠. 난이도가 조금씩 높아집니다. 이번에는 장경식 군, 문제 선택해 주세요.
장경식(남) : 어휘 선택하겠습니다.
(띵동) [E] '마' 자가 들어가는 다음 네 개의 고사성어 중, 한자 '마'의 뜻이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①번 주마가편, ②번 견마지로, ③번 절차탁마, ④번 천고마비
사회자 : 두 학생 모두 3번을 적어 주셨는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방청객 박수 소리> 다른 고사성어들은 '말 마(馬)' 자를 쓰는 데 비해, 학문이나 기예 등을 열심히 갈고 닦는다는 뜻의 '절차탁마'는 '갈 마(磨)'자를 사용하죠. 자—, 두 분 사이좋게 나란히 가고 있는데, 이제 3단계 창의적 사고력을 테스트하는 문젭니다. 자, 문제— 주세요.
(띵동) [E] <보기>의 그림을 자세히 보고 마지막에 올 그림은 어느 것인지 골라 주세요.
사회자 : 다섯 개의 그림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르면 됩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전자 시계를 볼 때처럼 선에 의해 드러나는 글자의 모양을 잘 살펴 주세요.

5. [출제의도] 정보 전달 방식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출연자에게 '찬스' 사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그 찬스에 의해 상황이 한 순간에 역전될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② 사회자가 2단계로 넘어가면서 '난이도가 조금씩 높아집니다.'라고 한 데 착안한다. ③ 1단계에서 출연자에게 '찬스' 사용 기회를 제공한 점, 3단계에서 힌트를 제공한 점 등에 유의하면 된다. ⑤ 퀴즈 문제의 정답이 발표되고 나면 사회자가 정답과 관련한 지식들을 보충하여 설명하고 있다.

6. [출제의도] 제시된 정보를 창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전자 시계를 볼 때처럼 선에 의해 드러나는 글자의 모양'을 잘 살펴보라는 힌트에 착안하여, 제시된 <보기>의 그림에서 드러나는 글자(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하여 보면 정확한 글자의 모습이 드러남)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4 → 3 → 2'가 된다. 따라서 마지막에 올 숫자를 '1'로 추리할 수 있다.

7. [출제의도] 체험과 속담을 바탕으로 주제를 연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⑤의 '아 해 다르고 어 해 다르다'라는 속담은, 말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신중하게 말하기'의 내용에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의 체험은 자신 없는 말하기에 해당하므로 속담 활용이 적절하지 않다.

8. [출제의도] 토론 자료를 보고 글을 쓰기 위한 내용을 적절히 생성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②의 (가)가 스크린 쿼터제를 양보하는 대신 다른 부문의 수출을 늘리자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먼저 반박하고자 하는 상대 측 논거가 드러나 있지 않다. 다음, 영화가 아닌 다른 경제 부문에서 이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한 것은 '한국 영화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논점에서 벗어나 있다.

9. [출제의도] 주어진 조건에 맞게 표현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어느덧 20년, ~ 꿈꾸는 자리'에 행사의 취지와 애교심이, '원대한 희망을 꿈꾸는 자리'에 학교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리고 '거목 ○○고교'에서 비유의 효과가 나타나 있다.

[오답풀이] ①은 ㉠·㉡의 조건이, ②는 ㉡의 조건이, ④는 ㉡의 조건이, ⑤은 ㉢의 조건이 각각 결여되어 있다.

10. [출제의도] 글감을 활용하여 작문의 상황에 맞게 개요를 적절하게 수정·보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문제이다.

작중 인물 간(수지-오목이)의 갈등이 해소되고 행복한 결말로 끝이 나야 작품의 주제가 부각되는 것은 아니다. ㄹ을 두고 갈등의 완전한 해소로 보거나 행복한 결말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곧 ㄹ이 '풍요 속의 비극(ㅂ), 풍요 속의 이기심과 배타성(⑤)'이라는 주제 의식을 부각시킨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③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ㅁ을 고려하면, 이 작품은 '문학과 현실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허구와 사실의 차이'라는 말은 '문학은 허구이지, 현실(사실) 그 자체는 아니다'는 것을 언급할 때 적절한 말이다.

11. [출제의도] 쟁점을 파악하고 의도에 맞게 표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제안자(학생회장)는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허용해야 한다는 두 입장을 절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의견을 주문하고 있다. ④는 두 입장의 문제점을 각각 지적한 후, 학생과 학교 측의 과제를 제시하여 쟁점을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제안자의 주문에 가장 적합하다.

12. [출제의도] 혼동하기 쉬운 어휘를 상황에 맞게 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되어', '되어요', '되었다' 등에서 '되'와 '어'가 결합하여 줄면 '돼'가 되어 각각 '돼', '돼요', '됐다'가 된다. '되'가 '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돼'로 줄지 않는다.

13. [출제의도] 고쳐쓰기의 적절성을 비판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둘째 문단의 첫 문장은 문단의 소주제문이고, ⓑ 다음은 이를 예시의 방법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예를 들면'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14. [출제의도] 올바르지 못한 문장과 그 이유를 파악해 낼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이다.

④에서 '많다'의 주어는 '영양'이지 '맛'은 아니다. 따라서 '맛도 좋고 영양도 많다'는 표현이 올바르다.

[오답풀이] ①은 지나친 이중 피동('열리지'가 맞음), ②는 높임법의 잘못된 적용('있겠습니다'가 맞음), ③은 의미의 중의적 표현, ⑤는 불필요한 의미의 중복(별도-따로)

[15~19]

15.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과 성격을 정확하게 감상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가)의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라는 표현을 통해 화자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의 화자는 삶과 죽음의 의미를 성찰하고 있고, (다)의 화자 역시 겨울 여정의 객수(客愁)에 젖어 있을 뿐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오답풀이] ② (나)에서는 '삶', '죽음'이라는 추상적 서술 대상을 의인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16. [출제의도]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가)의 화자가 찾고 있는 것은 '담 저쪽의 나' 이므로 ⓐ는 '상실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나)의 화자는 '문의 마을'이라는 깨달음의 공간에서 인간의 모든 삶은 결국 죽음과 닿아 있음을 깨닫는다. 이런 맥락에서 ⓑ는 '삶에서 죽음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의 화자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이다. 그러므로 ⓒ는 '나그네의 여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17. [출제의도] 작가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여 작품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일기의 내용을 보면, 시인이 생존했던 일제 감정기의 억압적 상황이 시인의 심경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해 알 수 있다. 고등계 형사는 시인을 사상범으로 몰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은 작품 내용 중 '긴 그림자'라는 시구에 나타난다. 이는 어둠의 이미지를 통해 화자를 둘러싼 암담한 현실 상황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18. [출제의도] 작품의 의미 구조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나)는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 성찰하고 있는 작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삶'과 '죽음'의 세계가 의미의 두 축을 이루고 있다. 화자는 죽음을 '거부'하려 했지만, 결국 죽음을 수용함으로써 '삶과 죽음의 조화'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화자가 서 있는 '세상'과 '잠든 마을'은 삶의 세계이며, '먼 산'은 죽음의 세계이다. '눈'은 삶과 죽음의 수용을 의미하고, 죽음에 대한 거부를 의미하는 것은 '재'가 아니라 '돌'이다.

19. [출제의도]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다른 작품에 적용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화자가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의미로 볼 때, ㉠은 화자의 외면과 내면을 분리하는 것이며, ㉡은 외면과 내면을 연결하는 것이다. 제시된 내용 중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은 자아의 단절을 의미하는 '칸막이'와 단절 상태를 해소하는 '통로'라고 볼 수 있다.

[20~23]

20. [출제의도] 본문의 내용과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본문은 경제학에서 다루는 '경제인'의 개념을 명확히 알고, 그 토대 위에서 경제학을 이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인'에 대한 이해는 경제학을 이해하는 기본 전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은 경제학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경제학의 기본적인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시키는 내용으로 제시할 수 있다.

21. [출제의도] 중심 제재의 개념을 다른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경제인은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나의 재화 소비량이 증가하면 나의 행복도 증가하고 소비량이 감소하면 행복도 감소한다는 것이 경제인의 입장이다. 이때 다른 사람의 소비량은 나의 행복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③ 제시된 상황의 '나'가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비합리적인 행동일 뿐이다.

22. [출제의도] 주어진 문단의 내용을 실제 상황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에서 세 사람은 각기 다른 방법으로 행복을 느끼고 있다. 그것은 '무엇이 쾌락이고 무엇이 고통인지는 오로지 그 자신만 안다'는 본문 내용으로 볼 때, 사람마다 쾌락(이익)을 얻기 위한 합리적 선택 기준이 다르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3. [출제의도] 주어진 상황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속담을 고를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의 의미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얼마만큼 소비하느냐는 나의 행복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나의 소비량 또한 다른 사람의 행복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본문의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소비가 나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시하여 ㉠을 설명할 수 있다.

[24~27]

24. [출제의도] 글의 중심 내용을 끌어내기 위한 물음을 파악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은 코페르니쿠스로부터 시작된 근대 과학 혁명의 흐름을 밝히는 과정에서, 근대 물리학이 세계의 물리 현상을 일관된 법칙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낙관적 세계관을 지녔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 그런 생각이 여지없이 깨지면서 어떤 과학적 법칙도 완벽하거나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음을 서술하고 있다.

25. [출제의도] 독자 반응의 적절성을 비판하는 문제이다.

지문에서는 과학 혁명을 근대에 이루어진 근대 과학의 혁명에 한정해서 말하고 있지만 보기의 내용은 과학 혁명이라는 것이 특정 시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기 위한 과정을 뜻한다고 하였다. 이로 볼 때 ①은 옳지 못하

다. 고전 물리학은 과학 혁명을 거치면서 생성된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된 때라고 해야 한다.

26. [출제의도] 사실적인 정보를 토대로 만화라는 양식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⑤의 경우 슈뢰딩거는 양자역학을 완성한 학자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양자 역학이 상대성 이론을 폐기하면서 들어선 이론이 아니라는 점에서 옳지 않다. 마지막 문단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상대론과 양자 역학은 현대 물리학의 양대 이론이다.

27. [출제의도] 문맥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한 후 한자어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하늘'에 대응되는 한자어는 '우주'와 '천체' 같은 것이 될 수 있겠지만 '땅'에 해당하는 한자어는 '지구'가 되어야 한다.

[28~32]

28. [출제의도] 특정 어휘에 주목하여 '인물'과 '사건'에 관한 정보를 추리하는 문제이다.

제시문의 마지막 부분은 '그(권씨)'가 강도 행각을 마치고 나가면서, 자신이 강도 신분임을 잊고 가족이 잠자고 있는 '문간방'으로 들어가려 하는 대목이다. 이 대목의 '문간방'은 강도가 곧 권씨임을 암시해주는 정보로 보아야지, 가족애로 뭉쳐진 한 가정의 가장으로 추리해 낼 수 있는 정보로 보아서는 곤란하다. 아울러 아내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강도짓을 했다는 점도 가족애와 직접적으로 연결짓기 어렵다.

29. [출제의도] 작가의 창작 의도(서술자의 서술 의도)를 추리하는 문제이다.

'그'가 분만 수술비를 빌리러 왔다가 '나'(오 선생)에게 거절 당하고 돌아가는 장면이나, '그'가 몰래 '나'의 집에 강도짓을 하러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장면은 모두 현실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한 인물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때 '그'가 대학까지 나왔노라며 한 말(ⓐ, ⓑ)은 끝내 자존심만큼은 잃고 싶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것을 잘 드러내준다.

30. [출제의도] 바꾸어 쓰기의 효과를 알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이다.

[A]의 '나(오 선생) - 그(권씨)'를 <보기>에서는 '나(권씨) - 그(오 선생)'으로 바꾸어 표현했다. 곧 서술의 초점이 되는 인물이 <보기>에서는 '나'(주인공)가 되므로, '나'의 심정이 관찰되어 서술되는 [A]에 비해 더 정확하게 드러나는 효과가 있다.

[오답풀이] ③ 지칭 대상의 교체에 따라 서술의 시점이 바뀐 것은 맞지만, [A](1인칭 관찰자)가 <보기>(1인칭 주인공)에 비해 대상 인물을 관찰하며 심리를 추측하는 성격이 더 강하다.

31. [출제의도] 사건 전후 정황을 고려하여 발화시의 심리 상태를 추리하는 문제이다.

강도 행각을 끝내고 집을 나가는 장면에서 '그'는 엉겁결에 자기 집인 문간방으로 들어가려는 행동을 한다. 이런 대목에서 강도의 신분이 권씨임이 또 한번 드러나게 되지만, '나'는 끝내 모른 체하고 대문이 있는 방향을 일러준다. 요컨대 서로 누구인지 알고 있지만 끝내 모른 체하고 있으므로, '나'가 떠올렸음직한 생각으로는 ④가 적절하다.

32. [출제의도] 인물 행위의 평가와 종합적인 작품 감상 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그'에 대한 '나'의 대응 태도의 문제점은, 문간방에 세들어 살고 있는 딱한 처지의 '그'를 도우려는 마음은 느끼지만, 상대의 여건보다는 자신의 처지를 더 중시함으로써 심한 내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는 '나'가 '그'의 돌아서 가는 모습을 보고 뛰어가 그를 부르려고 하는 대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가)에는 ⑤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나'는 '그'의 처지를 딱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 '그'의 셋방 주인이긴 하지만 '나' 역시 생활이 넉넉하지 않다는 점에 유의한다.

[33~37]

33. [출제의도] 글쓴이의 집필 의도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은 역사학의 객관성, 공정성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작하고 있다. 진정한 역사는 기록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자료를 통하여 최소한의 안전 장치로 개연성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이로 보았을 때, 이 글은 ③과 같이 역사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에 대한 생각을 전달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4. [출제의도]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주어진 상황에 반응하는 문제이다.

글쓴이의 관점은 역사가 기록되었다고 해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중록의 경우에도 객관성을 확보하려면 다른 기록을 참고하여 역사적 진실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②에서 확인할 수 있다.

35. [출제의도] 어휘 간의 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1문단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라는 개념이 나왔고 마지막 문단에 개연성이 나왔다. 마지막 문단의 내용을 보면 객관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로 개연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공정성에 대한 의문과 관련하여 객관성을 이야기한다고 하였다. 이로 볼 때 객관성과 공정성의 전제로 개연성을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6.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여 같은 사례를 찾는 문제이다.

㉠은 문맥적으로 '들어 있어야 할 것이 없다'의 뜻을 지니고 있다. ①도 마찬가지다.

[오답풀이] ② '못된 곳으로 마음이 팔려 넘어가다.' ③ '모자라다' ④ '그럴 듯한 말이나 짓에 넘어가다.' ⑤ '박혀 있는 것이 제자리에서 나오다.'의 의미이다.

37. [출제의도] 보기를 참고하여 사고를 심화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④의 경우 선비들의 역사 의식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분쟁에 이용했다는 것은 알 수 없다.

[오답풀이] ② 가치 개념이란 사림이 우세해진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③ 선비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난'이 '사화'가 된 것이다. ⑤ 척신 정치가 종식되면서 사화라고 지칭하지 않은 것은 정치 상황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38~42]

38. [출제의도] 글쓴이가 내용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둘째 단락까지 문화 유산으로서 언어의 성격을 규정하고, 넷째 단락에서 근래 우리말이 겪고 있는 변화의 문제 상황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단락 이하에서는 소실된 말들을 수집·보존하고, 더는 잃지 않도록 보호할 방책을 세워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를 가장 잘 정리한 것은 ②다

39. [출제의도] 논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독자의 비판적 반응의 적절성을 묻는 문제이다.

글의 논지는 언어가 귀중한 문화 유산이고, 소중한 문화재인데, 근래 우리말의 변화가 커 소실된 말들을 수집하여 보호할 방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를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소실된 말이나 소실 위기에 처한 말들을 수집·보존하고, 보호할 대상이나 방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보는 것이 필요하므로 ⑤가 가장 적절하다.

40. [출제의도] 핵심 개념 및 지식을 파악하고 이를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⑤의 '샛바람, 마파람' 등의 기후 관련 어휘에서 선인들의 여가 문화의 양상을 끌어내기는 어렵다. 또 신바람(신이 나서 우쭐우쭐하여지는 기운)과 댓바람(일이나 때를 당하여 서슴지 않고 당장)은 제시된 다른 어휘와 일관된 체계를 이루고 있지 못하다.

41. [출제의도] 개념과 지식을 구체적 용례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에 따르면 긴소리로 발음되던 것도 둘째 음절 이하에 위치하게 되면 짧게 발음되는 경향이 있고, 신체와 관련된 말 역시 짧게 발음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 ⓑ, ⓓ는 모두 짧게 발음된다.

42. [출제의도] 제시된 정보에 대한 글쓴이의 입장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글쓴이가 이 글에서 ㉡의 정보를 지적한 것은 그만큼 근래 우리말이 겪고 있는 변화가 전례 없이 그 폭이 크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글쓴이는 '젊은이들'에 대해 문제 삼기보다는 근래 우리말의 상황을 문제 삼고 있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②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에서 '큰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 ③의 '외면하는 것을', ④의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⑤의 '어쩔 수 없는 양상' 등은 글쓴이의 입장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43~46]

43. [출제의도] 두 글의 비판적 독해를 통해 공통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가)에서는 사물을 의인화하여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고 타인의 역할을 비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나)에서는 신체의 일부를 의인화해 타인의 위치와 역할을 부러워하며 자신을 경시하는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둘의 공통점은 '타인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세태'라 할 수 있다.

44. [출제의도] 인물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가)의 '규중 칠우'는 자기 공로를 내세울 뿐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다른 인물들의 역할과 공로를 별것 아닌 것으로 폄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오답풀이] ① '자신의 약점'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기에 감추려고 하는 의도가 나타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② 주인을 비난하고 있는 모습만 나타나 있다. ⑤ 남과 비교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다.

45. [출제의도] 여러 가지 면에서 글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은 외부 관찰자의 시각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의 외면만을 묘사하고 있을 뿐, 인물의 내면을 서술하지는 않았다.

46. [출제의도] 보기의 조건을 참고하여 유사한 주제의 작품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인간의 입장에서 사물의 장점이나 단점을 거론하고 교훈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②, ③, ④이다. 이 중에서 (나)와 그 주제가 유사한 것은 ③인데, (나)와 ③의 주제는 '자기 본분에 충실한 삶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다.

[47~51]

47. [출제의도] 지문의 내용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3문단에서는 서양화의 '일점투시도법'과는 달리 우리 옛 그림은 세 가지의 원근법을 뒤섞어 사용한다고 하였으며, 2문단에서는 옛 그림이 대상의 속성을 종합적으로 드러낸다고 하였다. 그런데 ③을 보면 세 가지 원근법 중 '평원법'만을 사용하여, 대상을 최대한 정밀하게 표현한다고 하였다. 이는 서양화의 성격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48. [출제의도] 글의 서술 전략을 파악하여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대상Ⅰ의 긍정적 평가에 이어 부정적 평가를 지적하고, 대상Ⅱ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서술 전략을 취한 것은 ④이다. 서양식 주민 자치 제도의 장점인 '기능적 합리성의 우수성'과 단점인 '정서적 결속력의 저하'를 제시하고, 이어 두레 제도의 '정서적 결속력'을 내세워 그 우수성을 부각한 것이다.

49.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세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의 우리 옛 그림은 이 글의 문맥상 산수화에 해당하는데, 산수화는 '삼원법'을 바탕으로 대상의 원근감을 표현한다. 다양한 시선이 뒤섞여 있는 삼원법을 쓴다고 해서 자연의 사실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넷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50. [출제의도] 지문에 나타난 관점을 파악하여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처럼 인간도 자연과 함께 존재한다고 보는 시각은, 인간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며 자연과 교감을 나눈다고 보는 동양적 자연관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사고 방식은, 순수하게 자연을 예찬하면서 교감을 드러낸 ④와 같이, 고시조에서도 나타나 있다.

[오답풀이] ① 자연물을 통해 부모를 그리워함. ② 자연의 영원성을 본받고자 함 ③ 자연물을 통해 사랑하는 임을 기다림

51. [출제의도] 문맥적 의미를 추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는 모두 구체적인 대상(즉, 자연이나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므로 '시선'에 해당한다. 반면에 ⓔ는 '자연이~인간과 함께 존재한다고 보는 시각'을 가리키므로, 문맥상 '관점'에 해당한다.

[52~55]

52.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정보를 개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첫째 문단에서 현재 인공 지능 컴퓨터는 상식을 이용한 추론, 감각 정보의 처리 등에서 성과를 보

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했고, 둘째 문단에서 인공 지능 컴퓨터가 지닌 지식과 정보의 양은 많지만 이를 빠른 시간 안에 검색할 수 있게 구성하는 일은 쉽지 않다고 했다. 따라서 아직까지 인공 지능 컴퓨터는 인간처럼 상황 변화에 따라 정보와 지식을 빠르게 검색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53. [출제의도] 영화의 내용을 제시된 지문에 적용하여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매트릭스'라는 영화는 인공 지능 컴퓨터의 미래를 매우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다. 하지만 이 글은 인공 지능 컴퓨터의 가능성에만 주목하여 인공 지능 컴퓨터가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영화 '매트릭스'를 본 관객이 이 글을 읽는다면 이 글이 인공 지능 컴퓨터의 부정적 측면을 간과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54. [출제의도] 글의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이다.

[A] 부분에서 글쓴이는 인공 지능 컴퓨터와 인간의 지능의 차이점을 대조하며 내용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이 대조의 방식으로 전개하기에 적절한 글감으로는 대상과 대상의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좋다. ① 정의, 예시 ② 인과 ③ 과정 ⑤ 예시

55. [출제의도] 문맥적 의미를 묻는 문제이다.

㉣은 '인공 지능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물건이나 권리를 가지는 것을 뜻하는 '소유해야'로 바꾸면 그 의미가 달라진다.

[56~60]

56. [출제의도] 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이 적절한지 비판하는 문제이다.

이 작품에서는 부모의 요구로 자신의 결혼 약속이 취소될 위기에 처한 주인공이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지혜를 짜 내고 있다.

57. [출제의도] 갈등의 전개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취향의 '당초에 서울서 정혼을 하고 오시더라도 퇴혼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던 마님께서 마음이 변하였으니'라는 말로 볼 때, 이 부인(어머니)은 김 진사가 서울에서 돌아 온 후 마음이 바뀌었다.

58. [출제의도] 인물의 말하기 방식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이다.

이 부인은 '딸자식이란 것은 바깥부모의 하시는 대로 좇아가는 법'이라는 관습을 내세워, 채봉이 자신들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더 이상의 논의는 불필요하다는 것을 내세워 상황을 일단락 짓고 있으므로 ③이 타당하다.

59. [출제의도] 화자의 말과 행위에 담긴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된 부분에서는 채봉이 부모의 뜻을 따라 서울로 올라가고 있고, <보기>에서는 채봉이 실종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이 장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의 내용은 부모님 몰래 평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인 것으로 볼 수 있다.

60. [출제의도] 문맥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어휘의 뜻을 추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허허'는 딸이 순순히 자신의 뜻에 따르기를 바랐던 김 진사가 딸의 단호한 거절을 듣고 뱉은 감탄사 ⓐ는 '$\div \cdot \div^{2}$'가 적절하다.